



## 자가격리 없는 해외 여행지는?

강경한 봉쇄정책을 유지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관광객 입국 허용에 나섰고, 일찍이 개방한 유럽·미주 지역은 입국 시 PCR검사도 면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해외여행에 눈길이 쏠렸다.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해외여행지의 여행 조건을 정리했다.

### 입국이 가벼워진 유럽

유럽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는 백신 접종 증명서, 회복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독일,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회복 증명서, 백신 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터키는 음성확인서와 회복 또는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백신 접종자에게는 까다롭지 않은 미주/남태평양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칸쿤이 속한 멕시코의 경우 입국 조건 서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여행지인 괌,

사이판 그리고 최근 국경을 전면 재개방한 호주도 백신 접종 증명서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괌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갖추면 따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뉴질랜드도 5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여행객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1일차와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소 까다로운 아시아지역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입국 후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곳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다. 대부분 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함께 요구한다.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 여행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 또 PCR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약 하루 동안 격리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완전한 무격리 여행이라고 보긴

어렵다.

코로나19 보장 보험을 요구하는 나라로는 현재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등으로 코로나 보장 보험을 입국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몰디브와 캄보디아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할 수 있다.

### 완치자와 미접종자의 입국요건은?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VTL)을 맺은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완치자에 한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모두 면제한다. 태국은 완치자라면 백신 접종 증명서(2차 기준) 대신 회복 확인서와 함께 백신 1회 이상 접종 사실을 증명한다. 말레이시아는 4월1일부터 관광객에게 문을 열었는데, 완치자의 경우 PCR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인도와 베트남은 미접종자의 여행이 가능하다. 인도는 입국 시 PCR검사만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3월16일부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한다. 개방 당일 저녁 보건부의 공지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미접종자도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격리면제 주요 여행지 입국요건 구분

구분	국가	PCR 검사	신속 항원검사	회복 증명서	백신 접종 확인서
대양주	사이판	X	O	X	O
	괌			음성확인서 중 택1	
미주	호주	택1		X	
	미국				
	하와이				
유럽	캐나다	택1		X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터키				
중동/아프리카	노르웨이	택1		X	택1
	아랍에미리트				
	모리셔스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택1		X	O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인도				
	몰디브				
	베트남				

\*3월15일 백신 접종 완료 한국인 기준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각국 대사관 공지 참고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시기, 백신접종 완료, 완치 기준 등은 각국마다 상이

### 격리면제 주요 여행지 입국 후 특별요건

국가	입국 후 요건
캐나다	입국 후 무작위 선별 PCR 검사
영국	미접종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필요
프랑스	미접종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또는 양성확인서 중 택1
터키	백신접종 or 회복증명서 제시시 음성확인서 불필요
사우디아라비아	코로나19 보장 보험 가입 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입국 1일차 신속항원검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리	입국 1일차 PCR 검사
태국	입국 1일차 PCR 검사, 5일차 신속항원검사
인도	입국 후 무작위 선별 PCR 검사

### 2022년 관광 트렌드 키워드까지

키워드	내용
개별화, 다양화	뚜렷한 격차,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여행 취향
누구와 함께라도	누구와 함께라도 행복한 여행
경계를 넘어	여행 경계, 정해진 틀을 넘어서
즉흥 여행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떠나고 싶을 때 바로
위로와 치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
일상이 된 비일상	코로나 이후 대체여행 트렌드 지속
특별한 나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여행기록'

# 모두의 소망, '엔데믹'은 곧 올까요?

3년간에 이어지는 코비드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한계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국민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걸리지 않는 분들이 '별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팬데믹은 계절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조만간 정점을 찍고 엔데믹(endemic·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엔데믹이 찾아올 것이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적 방역 체계로 바뀌는 만큼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경쟁적으로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역패스를 1일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출구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게와 각종 상점은 방역패스문구를 떼고, 발열체크기를 치웠습니다. 방역패스 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며 마치 해방구처럼 붓물처럼 길거리로 야외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에도 신규 환자는 28만6294명을 기록해 1주 전(지난달 30일 42만4597명), 2주 전(지난달 23일 49만780명)보다 각각 10만,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5주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도 300명 이상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영·유아 확진자가 6만 명에 달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잘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44에 이르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해 엔데믹으로 바뀐다 해도 중환자나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의 지긋지긋한 엔데믹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사망자가 아직 존재함에도 엔데믹을 선언하는 것은 소망의 산물이자, 결과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둠의 터널'은 보이듯 해도 착시현상일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불씨를 남겨 놓고 이제 다 소화되었다고 현장을 떠나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순식간에 다시 화마가 되어 온 집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방역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는 식의 '편리한 대처'로는 자칫 고통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후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그분의 의중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각 전염병의 주관자, 이 세상의 통치자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전염병이 주는 메시지를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이 전염병을 가져갈 이유를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분께 집중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집을 그리워하며 돌아온 것처럼, 바로 그 위대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욕대로 살고, 놀고, 먹고 했던 감각적이고, 인본적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절제와 거울을 보듯, 온 인류는 그분 앞에 인생의 의미를 되뇌어야 합니다. 동성애로 대변되는 정체성의 도전을 그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50여 개의 성으로 분류, 성의 선택이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장남으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예서의 망령됨과 비교할 수 없는 '망령' 그 자체입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절대진리의 상대화 바람에 날려가면 안 됩니다. 상대화할 것이 있고,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인류

를 살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해체주의의 바람을 따라 해체해야 할 것이 있고, 굳건히 반석 위에 서서 집을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입니다.

셋째는 엔데믹은 질병의 끝이 아닙니다. 풍토병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역력이 강화되어 날마다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질병은 종말의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사람다워지듯, 질병에서 승리해야 하루가 열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보다 그분을 의지하고, 이 팬데믹 마저 맡기는 것이 소중합니다.

넷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인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나를 지으신 이를 닮을 때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행복의 날입니다. 팬데믹을 뚫고, 그분과 동행하며 진정한 엔데믹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20:9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vch.or.kr](http://www.wv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 북한 미사일을 막아라!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공개적으로 파기하고 화성-17형 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강도 높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 미사일 날아오면 막는 국산요격 무기는?

미사일 방어는 군의 대공방어체계의 한 부분으로 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를 말한다. 지상과 공중, 우주에서 다양한 감시·정찰정보로 적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사 후 탄착시키기까지 전 과정을 탐지·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우리 국방부는 사거리에 따라 300~1,0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00~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SRBM이다. 현재 1,000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커드-B, 스커드-C가 대한민국의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MRBM으로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ER과 스커드 개량형, 북극성 미사일 시리즈, 노동미사일 등을 개발해 보유 중이다.

### 천궁 II

천궁II는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미사일인 '천궁'의 개량형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2017년 개발에 성공했다. 품질인증사격 시험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양산단계에 돌입한다. 국내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무기로서,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소수이다.

천궁-II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 특성과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해 개발되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판 '극초음속미사일' 등 저고도에서 기동하는 미사일 위협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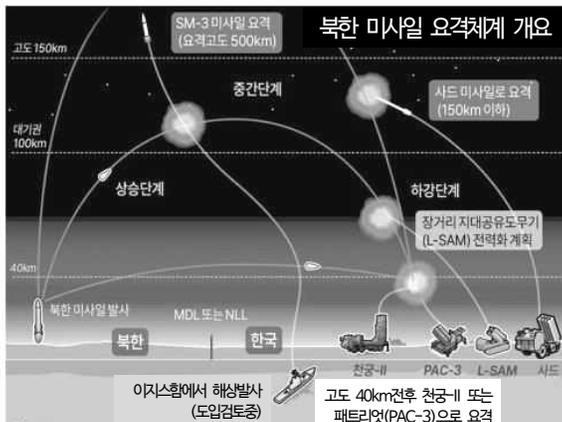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L-SAM은 고도 50~60km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다.

L-SAM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별도로 만든다. 교전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는 공유한다. 단거리 직후 요격 가능 고도로 올라서면 영상적외선 방식을 통해 적 미사일을 추적한다. 가까이 접근하면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이 추진체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면서 직격 비행체의 궤도와 자세를 조정, 요격한다.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발사 직후 관성유도를 하다가 미사일에 탑재된 탐색기가 적기를 포착, 파괴한다.

이같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선 중적외선 영상탐색기, 영상탐색기를 보호하는 덮개의 분리장치, 고온으로 상승하는 탐색기의 창 냉각,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도 갖췄다.

L-SAM이 배치되면 미사일 종말단계에서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하층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II 등과 함께 다층적 복합 방어체계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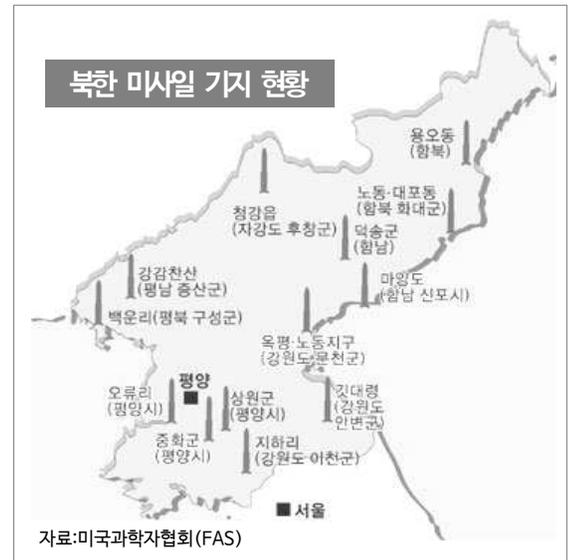


### 한국형 아이언돔(LAMD)-북한의 장사정포 요격

북한은 전방에 170mm 지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배치해 수도권을 기습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mm 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배치한 PAC-3와 천궁, 사드 등은 장사정포보다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적합하다. 크기가 작은 발사체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한반도 방어의 가장 아래 단계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우는 것이 장사정포 요격체계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는 2조8949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을 하고, 2035년까지 10여 세트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탄을 탑재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훨씬 많은 로켓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북한군의 능력을 감안하였다.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탄 발사대도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했다. 요격탄의 1발당 가격은 4억 원 수준이다.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적용된다. 북한군 장사정포 포탄을 대포병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차량과



교전통제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능력도 갖추게 된다.

문제는 배치 시기와 수량이다. 203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배치 수량도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소재 국가중요시설과 주요 군사시설 일부만 방어할 수 있다.

### 고체연료우주발사체 시험 성공-북한 ICBM에 대응

#### 신형 ICBM 화성-17형 제원(추정)

공개시기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
길이/직경	23~24m/2.3~2.4m
이동식발사차량	11축 22륜(바퀴 22개)
사거리	1만3000km 이상

자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외 종합

국내 기술로 만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이 최근 우주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사용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데 대한 우리 군의 맞대응이다.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로 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기술 과시의 두 가지 효과를 얻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는 500kg 수준의 정찰위성 1개 또는 66kg 이하의 초소형 위성 다수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 다수의 정찰위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쏘아 올려서 북한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열차, 잠수함 등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추적·감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추진방식을 적용한 발사체는 액체연료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 보관·주입과 발사 과정에서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에 위성체 대신 탄두를 실으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되기 때문이다.

# 새 정부, 무엇이 달라지나

20대 대선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끝났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본다.

<p><b>부동산</b></p>	<p><b>주택공급 확대</b>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50만 호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며 이중 수도권은 최대 150만 호 공급</li> <li>-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li> <li>-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민간중심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및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의 공급</li> </ul> <p><b>재개발/재건축 활성화</b> -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사업추진, 공급량 확대 등의 정책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및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건설업과 도심지, 역세권역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li> </ul>	<p><b>노동</b></p> <p><b>근로시간 유연화 실현</b> - 노동개혁의 하나로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li> <li>-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li> <li>-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li> <li>-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li> <li>- 전문직·고액연봉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li> <li>-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신설,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li> </ul> <p><b>임금체계 개선</b> -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제로 개선하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시 직무·직군·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입 절차 합리화</p> <p><b>공정사회 관련</b>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특히 채용 분야에서 공정한 채용 내용과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p> <p>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모든 노동자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면서 유연한 훈련체계 도입 등을 통한 지원책을 제시. 현행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p> <p><b>일자리 창출</b> -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가지 분야로 1)융합산업분야 중심 창의형 일자리 창출 2)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3)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p>
<p><b>조세</b></p>	<p><b>기업 활력 제고</b> -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세대를 걸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국내로 생산시설을 복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p> <p><b>일하는 복지 강화</b> -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저소득자와 노인, 청년,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증진 계획</p> <p><b>부동산세제 개편</b> - 지난 정부가 주택 임대와 보유, 양도 등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왜곡과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설치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현실에 맞게 부동산 세제 조정</p> <p><b>기타 세제개편</b> -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인 상장법인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과세시스템 정비.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세제 면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p>	<p><b>에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국가 NDC 달성 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 중점 육성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li> <li>-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계획, 탄소배출저감계획 등 정책들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li> <li>- 수소산업 육성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함께 원자력과 연계한 이른바 '핑크수소' 생산 기술을 적극 활용</li> </ul>
<p><b>금융</b></p>	<p><b>대출규제 완화</b>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올라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대상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80%, 그 외 70%로 올린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0~40% 등으로 차등을 둔다.</li> <li>- 생애 최초 구입자는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li> <li>-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 금리 인상기에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li> </ul>	<p><b>복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 발달전문가를 파견해 발달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미만에 대해서는 약값을 지원</li> <li>-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 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 관리체계를 도입해 출생 이후 고교졸업 시 까지 건강검진 기록을 구체화·체계화함</li> <li>- 현재 남녀 각각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씩(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li> <li>-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림</li> <li>-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li> <li>- 기초연금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li> <li>-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만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li> </ul>

# 원자력 에너지 부활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완전 백지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탈원전 기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에너지원과 비교해 위축돼 있었으나, 새 정부에서는 원전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될 전망이다.

## 탈원전에서 원전확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곧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논의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39년 만에 폐지됐고, 2018년 월성원전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지되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며, 이중 월성원전 2~4호기와 고리원전 2~4호기 등 원전 10기가 2030년 까지 차례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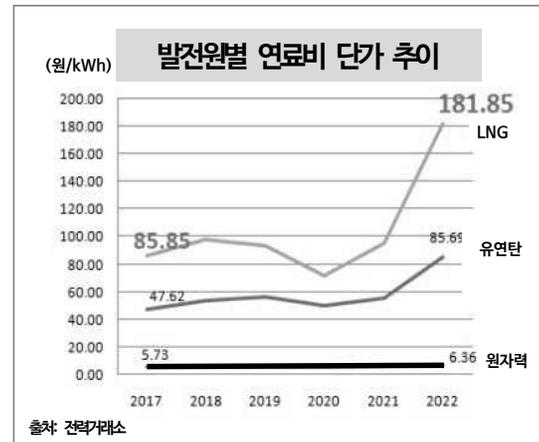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5년은 국내 원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모회사로서 전력소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 전체를 사실상 먹여살리는 구조로 마무리됐다. 한전이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기준 지난해 5조2292억 원의 당기 순손실(잠정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산하 발전공기업인 한수원은 지난해 3000억 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개 화력발전사는 200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의 원전 발전 없이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고사하고 이를 비롯한 각종 공적 사

업을 수행하는 한전 및 발전 공기업 전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값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의 강점이 확인되었다.

준(準)국산 연료인 우리나라를 사용하는 원전을 퇴출 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국가간 물량 쟁탈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률은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85%, 제외할 때는 96%다. 원자력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크게 하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전의 전력구입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61.6원이다. 이는 작년 1월(72.8원) 대비 15.4% 하락한 금액이다. 반면 1월 유연탄(석탄)은 135.6원, 유류(석유)는 215.6원, LNG복합은 206.7원을 나타냈다. 1년 전보다 각각 48.6%, 22.6%, 93.7% 오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신재생 발전의 전력구입단가도 치솟았다. 대체에너지(태양광·풍력) 전력구입단가는 1kwh 당 299.8원으로 1년 전 대비 106.8%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신재생 발전을 적극 확대했지만, 대외 요인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결국 비용 부담만 높아졌다.

### ■ 원자력의 장점

- 1) 원자력은 생산 과정이 깨끗하다. 사실, 대부분 원자로는 무해한 수증기만 대기로 방출한다.
- 2)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
- 3) 원자력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하나의 공장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 4) 거의 무공무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매장량이 수천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에너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 그의 세대는 일정하다.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예: 밤에 생성할 수 없는 태양 에너지 또는 바람 없이 생성할 수 없는 바람)과 달리 그 생산량은 엄청나고 수백 일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정된 재충전 및 유지 보수 중단을 제외하고 연간 90% 동안 원자력은 최대 용량으로 운영된다.

### ■ 원자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력 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주요 가스는 CO<sub>2</sub>이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배출량이 훨씬 적다. CO<sub>2</sub>는 우리를 추출하고 공장으로 수송하는 동안에만 배출된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드물지만 매우 위험하다. 모든 사고는 생태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 모두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다. 이러한 사고의 문제는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선에 있다. 이 방사선은 노출된 모든 식물, 동물 또는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원자력 사고 외에 생성된 폐기물은 방사성이 없을 때까지 수천 년 동안 남아있다.

## 내 인생의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성훈  
(월드와이드교회 부목사)



때는 고3 신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고3 첫 모의고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었다. 고3 첫 모의고사였기에 더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에 시험공부를 했던 것 같다. 기도하면서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시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시험 이후에 어느 정도 상위 등수를 크게 기록해서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었다. 당연히 그곳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쉬는 시간에 공부보다는 엎드려서 자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도 여전히 그런 무력감에 빠져 엎드려 있었던 때였다.

그때 내 머리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는, 보여지는 말씀이 있었다. 바로 빌립보서 4:6-7절 말씀이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셨다. ‘성훈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니?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려무나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가 나의 뛰어난 지각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 모의고사 때는 내 이름도 그 명단에 올릴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빌립보서 4:6-7절 말씀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게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올 때마다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 내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말씀 구절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을 주는 귀한 보물인 것이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빌립보서 4:6-7절까지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결코 전쟁이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탈이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간인 피해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전쟁은 왜 일어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창설되었다.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화되자, 미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적 동맹 NATO를 창설하였다. NATO는 회원국이 비가입국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상호방위를 하는 일종의 집단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도 NATO에 가입하면서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 동유럽의 나머지 국가들도 차례차례 NATO에 가입했고, 그 사이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는 최후의 보루이며 흑해를 접하고 있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여러 곳을 무력으로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가 목적이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신나치주의자 통치에 놓여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박하며 권위주의적인 러시아와 다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막고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최대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 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관심을 쏟았다. 동부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 내렸다. 이후 그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원하는 이들 반군 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분리주의 지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친러시아 성향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지자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갈등으로 지금까지 14000명이 사망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평화 협정을 파기하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북쪽, 동쪽, 남쪽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군사력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전 세계 군사력 평가 기업 GFP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이다. 전체 군인 수도 러시아가 2배 넘게 많은 데다가, 지상군 장비(탱크, 장갑차 등)도 러시아가 크게 앞선다.

## 이번 침공은 유럽에 얼마나 위험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내에서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도 두려운 시간이다.

독일이 “푸틴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번 침공으로 3주만에 러시아 군인 7000명 이상, 우크라이나 민간인 9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추산하였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1940년대 이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8년간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온갖 역경을 잘 이겨내고 있다. 탱크, 군대, 군용기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군은 민병대의 지원에 힘입어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많은 나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쳤다. 라트비아, 폴란드, 몰도바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리투아니아와 몰도바에는 이미 여성과 어린이 피난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

이번 전쟁에 러시아 국민도 준비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상원이 이번 침공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자원의 무기화

러시아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4분의 1가량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자원이 부족한 유럽은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유럽의 천연가스 중 40%가 러시아산이다. 그리고

가장 큰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갈등을 보일 때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거린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보이고 NATO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일부를 잠갔다. 그 결과로 2021년 4분기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고, 2022년 1분기에는 44%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독일이 탈원전, 탈탄소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전쟁 종식까지 ‘가시밭길’

터키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집단 안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상호 공동 방어를 하듯, 우크라이나도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보보장국은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했을 때 무기 지원, 파병, 영공 폐쇄 등 군사 개입 의무가 있는 탓에 선뜻 참여할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다.

EU 가입의 문제도 러시아가 가로막지 않는다 해도 EU 조약에 집단 방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EU가 직접 관여해야 하므로 EU가 분쟁국인 우크라이나를 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가장 큰 난제는 영토다. 돈바스 지역 일부를 점령한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돈바스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군사작전 목표를 돈바스 해방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내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진정한 승자는 푸틴 대통령이다. 침공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비무장화를 관철시켰고, 우크라이나가 ‘타협 불가’를 천명했던 영토 일부에 대한 양보까지 받아냈다. 푸틴 대통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답답한 카페는 이제 안녕

카페의 대형화 바람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고형 카페나 식물원 카페가 인기가 있다. 옛 공장의 느낌을 한껏 살려 다양한 분위기의 콘셉트로 꾸며진 카페는 향수와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닌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더티 트렁크

미국의 어느 창고에 온 듯한 거대한 공간감이 드는 이국적인 느낌이다. 울인원 플레이스로 카페, 베이커리, 키친, 바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더티 트렁크만의 거칠고 스모키한 커피를 맛 볼 수 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114  
영업시간: 9시~22시



조양방직

조양방직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회사였다. 섬유산업의 최전성기를 누리다가 대구나 구미로 섬유산업이 옮겨가면서 폐가로 방치되다 2018년 지금의 카페로 오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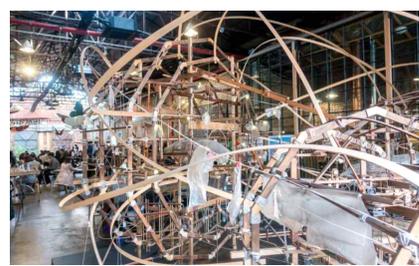
주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5번길 12  
영업시간: 11시~20시



더 카핑

1999년 용인시 기흥구에 오픈한 최초의 자동차 경매장인 서울자동차경매장 건물을 2014년 AJ그룹이 인수하여 자동차 경매장으로 사용하다 회사가 이전하면서 리뉴얼한 카페이다. 커피는 물론 식사와 수제맥주까지 즐길 수 있다. 1층은 잔디가 깔려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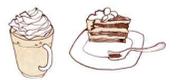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교매동 420  
자동차 경매장동 1~2층  
영업시간: 10시~21시



대림창고

서울 성수역 대림창고는 40년전 정미소로 지어졌다. 물품창고로 사용하다 2011년 샤넬등의 패션쇼나 행사장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카페 겸 갤러리로 가게 내부에는 조형물들이 있고, 그림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78  
영업시간: 11시~23시  
주차장 없음



문지리 535

식물원처럼 열대 야자수와 각종 식물로 꾸며져 있어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다. 간단한 식사도 판매한다.

주소: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535  
영업시간: 10시~20시  
화요일 휴무



글린공원



글린공원은 도심속 힐링 공간으로 커피와 제과점에 식물원 컨셉이 더해진 공간으로, 주말에는 방문객들로 자리잡기가 어렵다.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로5번길 34  
영업시간: 10시~21시



포레스트 아웃팅스

일산 지역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카페로 초록함이 가득한 식물원카페이다. 식물원 카페답게 중앙에는 분수와 식물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24  
영업시간: 10시~2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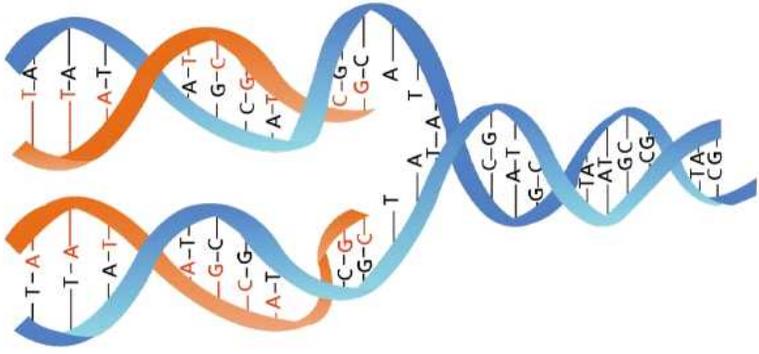


앤드테라스

앤드테라스는 3층 규모의 대형온실 구조 건물로 카페보다는 식물원 느낌이 드는 곳이다. 식물을 오브제로 활용하고, 식물 자체로 플랜테어를 했다. 식물은 매주 정원사가 방문해 관리하고, 쿨링 포그 시스템으로 인체에 무해한 안개를 분사시켜 공기를 정화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오도로 91  
영업시간: 10시~22시





## DNA와 단백질, 무엇이 먼저인가?

DNA는 Deoxyribonucleic acids(디옥시리보핵산)의 약자이다. DNA는 유사구조인 RNA(리보핵산)를 청사진으로 사용하는 몇 바이러스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사진(설계도)이다.

DNA는 4개의 다른 염기(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가 결합하는 핵산을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핵산은 특이한 결합 쌍(A-T, C-G)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구조’라 불리는 나선형으로 꼬여진 사다리 모양의 구조를 갖게 된다. A(아데닌)은 T(티민)과만 결합될 수 있으며, 어떠한 다른 염기도 사다리 가로대의 상대편에 올 수 없다. 이는 C(사이토신)과 G(구아닌)도 같다.

이러한 DNA의 기본 단위들이 사다리 구조를 따라 독특한 순서와 기능을 가진 구획들로 배열될 때 이를 유전자들이라 불린다. 각각의 유전자들은 메시지 또는 ‘암호(code)’를 담고 있다. 이러한 암호들은 A, T, C, G의 여러 DNA 순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해독하는 특수한 그룹의 단백질들에 의해서 읽힌다. DNA의 암호를 읽어내는 단백질들은 messenger RNA(mRNA)라고 불리는 DNA의 한 가닥의 작업용 복사본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 한다. mRNA가 만들어진 후, 몇몇 다른 그룹의 단백질들이 관여하여 mRNA의 메시지가 읽힌다. mRNA의 메시지를 읽어낸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하나의 단백질 단위체들을 생성하고, 이들은 함께 이어지도록 부착되어 새로운 아미노산의 사슬을 형성한다. 이때 이들은 적절히 구부러지고 접혀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 하나의 단백질(몇 번의 복잡한 변형 후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20여 개의 아미노산만으로 거의 모든 생명체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상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살아있는 세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들은 세포의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의 대부분 기능은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단백질들과 그 단백질들을 만드는 단백질들에 의존하고 있다. 단백질들은 DNA에 함유된 정보의 해독(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야 할 지를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백질들에게 말하고 있는)에 의해서 자신들을 만든다. 여기서 각 단계는 ATP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다른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사용될 수 없다. 세포는 유용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ATP만을 유일하게 사용한다. ATP 또한 특정 단백질들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 의문?

최초의 세포가 생겨났다고 가정해보자. 최초의 세포

에서 DNA와 단백질은 어느 것이 먼저 생겨났을까? 물론 DNA를 해독하는 단백질은 그것 자체가 DNA에 의해서 암호화되어 있다. 때문에, 단백질은 자신의 암호 또는 순서가 들어있는 DNA가 해독되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먼저 존재할 수 없다. 단백질들은 그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자체가 해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DNA가 결코 해독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은 결코 생성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DNA 또한 세포내 단백질들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먼저 존재할 수 없다. ‘자연발생설’에 관한 유행하는 몇몇 이론들은 아마도 RNA가 먼저 진화되었고, 나중에 DNA가 진화되어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RNA도 여전히 RNA 내에 함유된 정보에 의해 스스로 암호화되는 특수한 단백질들에 의해 해독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전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DNA와(또는) RNA,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 해독 시스템이 모두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은 기능들에 기초한 점진적인 선택 과정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작동될 수조차 없다. 닭과 달걀의 패러독스처럼 가장 단순한 생명체도 적절한 순서대로 모든 부분이 동시에 함께 작동하여야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하나라도 뺄 수 없는(최소한의) 복합체라고 표현한다. 즉,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거된다면, 모여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도의 기능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명체의 이러한 명백한 최소복합성은 DNA에 의해 유래된 단백질들에 의해서 또한 DNA가 생성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된다면, 다른 한편도 생성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물질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더 원시적인 생명체에서 진화된 생명체로 발전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이 원시적 생물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는 어떤 기능들을 가졌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대답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확실한 그러한 어떤 생물 이전 형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들도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복제가 이루어진다. 그들은 홀로 복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원자나 분자들이 어떤 장점들을 선택하여 생명체를 이루었나 하는 것이다. 무정형의 암석이나 슬러지 덩어리의 부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부분들로 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분자들을 선택하는 일들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자연선택은 정말로 유효한 힘이 아니다. 비록 많은 양의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과 완전한 기능을 하는 DNA 분자 가닥들이 동시에 함께 있었다고 할지라도, DNA와 mRNA를 동시에 해독하는데 필요한 수백, 수천의 독특하고 특수한 단백질들이 그러한 고도의 기능을 가지기 위해 모두 동시에 함께 연합하여 생성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현상은 지구상의 어떤 실험실에서도,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도 재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메커니즘도 전혀 제안되지 않았다. 정답은 오직 외부에서 지적설계가 개입된 것이다.

진화론의 주장은 최초의 세포는 알려진 모든 자연법칙을 거부하는, 알 수 없는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자연법칙은 모든 무생물체 물질들은 평형상태를 원한다고 말한다. 균질성은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외부 에너지나 무질서한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궁극적인 자연의 목표이다.

가장 단순한 살아있는 세포는 무질서한 균질성 상태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모든 세포는 의미 있는 정보복합체의 최고 수준에 있으며, 이들은 모두 놀랄 만한 기계들인데, 아직 한 번도 과학에 의해서 재생산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선택이 가동되기도 이전에, 모두 함께 단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장 단순한 세포도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세포들은 단지 수십 억년 전에 원시 대양스프에서 우연히 스스로 조합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다. 원시 지구의 사막 모래가 모여 스스로 슈퍼컴퓨터가 조립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구성물질들이 사막 모래 안에 섞여 있다. 화산활동, 번개, 바람 등이 이를 건설하기 위한 에너지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럼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 균질성이다. 각 부품은 비균질적인 방법으로 자체가 모여질 수 없다. 각 부품이 기능적인, 의미있는 정보를 함유한 수집체로 우연히 모여지기는 절대로 어렵다. 각 부품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 부품을 조립하는 데에는, 미리 확립된 정보와 외부 근원으로 부터의 지시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세포에 미리 설치된 명령이며, 미리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DNA가 그것이다. 만약 무작위적으로 이들이 모였다 해도, 외부에너지와 연관된 모든 가능성이 제공되었던 지에 관계없이, 각 세포의 부분들은 결코 스스로 조합되어 어떤 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



## 열방의 다이제스트

### 中, 미등록 교회 온라인 모임 불법화

영국의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3월 1일부터 미등록 교회의 온라인 모임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종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화한다. 당국이 통제하는 두 교파인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삼자교회는 새로운 규정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아시아 분석가에 따르면 “온라인에 무엇이든 게시하거나 공유하려면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허가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회에만 제공될 것”이라며 “이러한 교회들조차도 메시지가 적절하게 ‘중국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모든 ‘지하’교회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퇴출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세계 감시국 목록에서 중국은 17위에 랭크됐다.

### 日,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 ‘중군위안부’ 표현 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2023년부터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293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이 중 역사 분야 교과서의 경우 당초 신청본에 있던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중군위안부’ 표현도 검정 이후 삭제됐다. 역사 교과서 14종 가운데 6종은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고, 유일하게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고 기술한 짓교출판의 일본사탐구도 검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수정했다.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영유권 주장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 탈레반,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의 여객기 탑승금지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은 남성 보호자 미 동행 여성의 여객기 탑승을 금지했다. 탈레반이 임명한 국경경찰 지도부는 카블공항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떤 여성도 ‘마흐람’(남성 보호자) 없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블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 여객기에 타려던 여성 승객 수십 명이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마흐람은 아버지, 남편, 남자 형제 등 가족 중 남성이 맡는다.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탈레반 지도부는 국제사회 인정과 원조를 받기 위해 ‘여성 인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탈레반 정부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23일부터 중·고등 여학생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등교 당일 “여학생들 복장과 관련해 정부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후 남학생과 저학년 여학생에게는 차례로 등교를 허용했지만 7학년 이상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는 대부분 막아왔다.

## WSJ, “한국, 풍토병 전환 첫 사례될 것”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이 아닌 ‘엔데믹’(풍토병) 수준으로 낮춰 잡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낮은 치명률을 꼽았다. 현재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2%로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1.22%), 영국(0.79%), 일본(0.44%) 등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조정을 1

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SJ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풍토병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백신 접종률이 92%에 이르는 싱가포르의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했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팬데믹 사태 속에서 문을 닫았던 호주도 국경 개방과 함께 입국 의무사항이었던 PCR 검사도 폐지했다.

## 한국인, 일생 중 34년을 인터넷 사용

글로벌 가상사설망 서비스 기업 노드VPN은 한국 18~54세 성인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일생의 40%에 달하는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온라인에 할애하는 시간은 34년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길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인 83.5년과 비교하면 40%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국가는 브라질로, 41년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약 11년에 불과했

다. 주간 단위로 한국인의 인터넷 사용 비중은 온라인 쇼핑은 4시간 34분, 소셜미디어 4시간 12분, 게임은 3시간 23분이며 대부분 유튜브 시청,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영상 감상 등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에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영원히 삭제된다면 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30.5%가 ‘음주’를, 다음으로 비디오 게임 27%, 스포츠 활동 17.4% 순이었다.

## 서울시, 일부 구간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로 높인다. 이번에 선정된 도로는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이다. 구체적으로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현

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총 26.9km다. 한강 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80km/h)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40km/h 이하인 교량은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의 공사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기업들, 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채용’ 확대

대기업들은 올해 들어 채용설명회 등에 메타버스 방식을 대거 도입하였다. 이미 비대면 채용에 착수한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채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2월에 386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4개 사(45.1%)가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채용을 운영 중인 기업 67개 사 가운데 46.3%가 지난해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비대면 채용을 시작한 기업은 9.0%였다. 다만 비대면 전형 만족도는 아직 높지는 않았다. ‘만족도가 대면 채용보다 떨어진다’는 답변이 44.8%로 높았으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8.2%, ‘대면 채용보다 높다’는 22.4%였다.

###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 치료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까

오미크론 대유행이 3월 말부터 완만하게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도 정점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지나간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도 나왔다. 치료제의 효능을 통해 게임체인저로 기대해본다.

##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올 1월 14일부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주로 처방해왔다. 하지만 렉키로나는 냉장 보관 후 정맥 주사로 투약해야 하는 탓에 입원치료자에 한정해 사용됐다. 상대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와 달리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이 약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타 변이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는 외래진료 방문 없이 병원 의료진 처방을 거쳐, 지정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고 있다.

### ■팍스로비드의 효과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의 복합제로 프로테아제 저해제 계열의 약이다. 프로테아제 저해제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사용되는 프로테아제라는 핵심 효소의 작용을 막아 환자를 치료하는 원리의 약이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게임체인저라 불리지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증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체중 40kg 이상)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이지만, 증상발현 경과 시간, 기저질환, 복용하는 약에 따라 제한이 많다.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성분은 28종이다. 진통제(페티딘, 피록시잠, 프로폭시펜), 항협심증제(라놀라진),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

이디드), 항동풍제(콜히친), 항정신병제(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폐동맥 고혈압(PAH) 치료제(실데나필), 진정제·수면제(트리아졸람, 경구 미다졸람) 등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다.

복용 약물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처방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존 약물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직후 곧바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의 팍스로비드 처방 진입 장벽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약 시점이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증상을 처음 감지한 후 5, 6일 차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환자가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미 투약 시점이 지난 후라는 뜻이다. 게다가 하루 이틀 사이 환자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경증에 효과를 보이는 경구 치료제는 진작에 쓸모없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투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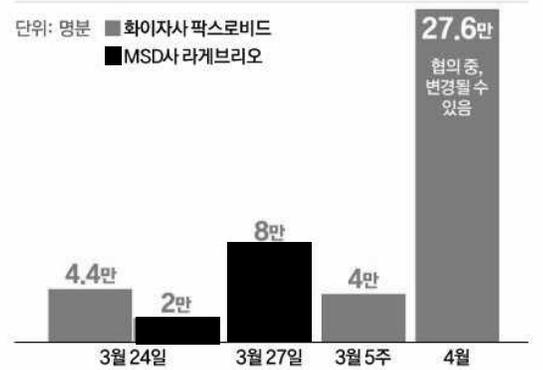
### ■라게브리오의 효과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는 ‘몰누피라비르’를 주성분으로 하며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뉴클레오사이드 대신 그 유사체를 삽입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치료제다.

라게브리오의 입원 및 사망 비율 감소 효과는 팍스로비드의 73%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승인한 ‘라게브리오’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비해 약효는 떨어지나 투약 조건이 덜 까다로운 특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

총 46만 명분



자료: 질병관리청

징이 있어, 먹는 치료제 처방에 제한이 있었던 고위험군 또는 기저질환자에게 대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이 많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했고,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올 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 동안 피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라게브리오·팍스로비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특징

	라게브리오·머크앤드컴퍼니(미국)	팍스로비드·화이자(미국)
성분	몰누피라비르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대상	주사형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렵고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b>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b>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제한	임부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간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
복용법 (1코스)	<b>4알씩 매일 2회(12시간마다)</b> <b>5일간(총 40알 1코스)</b>	<b>3알씩(니르마트렐비르 2+리토나비르1)</b> <b>매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총 30알 1코스)</b>
부작용	설사,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 약물 복용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 100/111 :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롱 코비드(long covid)’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이 수 주 동안 원인 모를 여러 후유증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숨 가쁨, 피로, 두통, 머리가 멍한 상태 등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미국),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영국), ‘만성(long-term) 코비드’ 등으로도 불린다. 후유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Q. 롱 코비드 증상?

피로와 숨가쁨,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나 집중이 어려운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롱 코비드 증상은 1)호흡곤란·숨가쁨 2)피로 3)신체적·정신적 활

동 후 상태 악화 4)생각·집중의 어려움 5)기침 6)가슴 통증이나 복통 7)두통 8)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9)관절통 또는 근육통 10)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11)설사 12)수면 문제 13)발열 14)서 있을 때 어지러움(현기증) 15)발진 16)기분 변화 17)미각이나 후각의 변화 18)월경주기 변화

롱 코비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상 증상의 조합이 함께 나타난다.

### Q. 증상 발생 기간은?

처음 코로나에 감염된 뒤부터 롱 코비드 증상이 발생해 회복 후 수 주간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감염

직후엔 없던 증상이 회복 후 새롭게 나타나는 때도 있다. 감염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증상이 없다가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짧게는 감염 이후 4주 이상, 길게는 12주 이상으로 연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 Q.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재택 치료 등이 끝난 후 활동량을 급격히 늘리지 말고 서서히 정상화하면서 재활을 한다. 무리한 운동은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기도로 뭘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뤄지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뤄질 테니 결국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기도의 효용을 놓고 심심찮게 터져 나오곤 하는 불멘소리다. 초대 교부 오리겐도,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아시며 만사가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기도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슷한 말을 했다. 이런 의문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는 정말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나?’ 하는 질문을 거쳐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 하는 질문으로 귀착된다.

어쩌면 기도는 간구하는 사람의 뜻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만나고 충돌하고 씨름하는 지점이라는 면에서 신정론의 한 영역에 속한다.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듯한 하나님은 과연 정당한가?’ 이런 의문과 함께 기도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가지론에 본의 아니게 제법 무게감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기도에 응답받는 삶인가 아닌가로 신자와 비신자의 삶의 정체성을 가리려는 이들에게, 이런 문제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변증 전도의 과제이기도 하다.

## ■ 기도에 대한 네 가지 정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는 미국 복음주의의 최고 작가인 필립 안시가 기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쓴 책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와 그 실천적인 풀이를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 전체를 들고 나와서 정결하게 씻어내고 제 모습을 되찾으라고 초청하는 안내장이다.**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자세, 즉 자신을 어디에 놓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제한하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는 방어벽을 낮추고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최대한 보여 드리는 과정이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오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임재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기도하는 쪽에서 실감하든 못 하든, 주님은 엄연히 그 자리에 계시다. 무엇을 요청하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주목적은,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거나 기적적인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기도하는 이유가 유익뿐이라면, 인격적인 관계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의식이 아니다.**

기도할 때 내면의 대화 상대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대화 상대이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린다. 엄청난 차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입이 열리고 이어서 마음까지 활짝 열릴 것이다.

**넷째, 기도는 꾸밈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편은 성내고, 짜증부리고, 제제하게 굴고, 후회하고, 걱정적이고, 시끄럽고, 불손한 면모를 모두 담고 있어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제의적 탄식이 끼어드는 걸 환영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감정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허락하고, 더 나아가 장려하시는 걸 보면 기도를 통한 파트너십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 ■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매개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뜻을 바꾸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일찌감치 ‘나를 바꾼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만큼이나 마음을 바꾸신다는 말씀도 많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말 3:6)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라는 말씀도 있다. 저자는 해답의 실마리를,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 관계, 곧 파트너십을 위한 매개체라는 사실에서 찾는다.

저자에게 기도는 파트너십, 즉 하나님과 인간이 미묘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거룩한 뜻을 이뤄 가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강요나 완승을 전제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상호 교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은혜가 작동되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 파트너십의 관계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창조주는 뭔가를 간단히 조작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저절로 영양이 공급되며,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이 쌓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세우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하셨다. 파스칼의 표현대로, 사랑하

는 인류를 위해 ‘인과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연극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배우들의 행동을 모두 조화시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극작가처럼 일하신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솔직함이다. 정직하게 간구하는 신자는 그 간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아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 뜻은 이러한 데 하나님 뜻과도 이리저리하게 맞지 않는지 여쭙볼 수도 있다. 기도에서 내 뜻을 처음부터 뭉개 버리고 없는 듯이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감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만 드리려는 마음은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려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교제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게 나의 말로 내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종하게 되는 통로가 기도이다.

## ■ 하나님에게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그래서 더욱 힘든 어떤 것이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잘 모른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분이 나보다 얼마나 크신지를 체험한다. 기도를 거절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도 전인적으로 깊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고,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믿음을 성숙시킨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노출시키며,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모하게 해 준다.

그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한 신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는 매개체가 기도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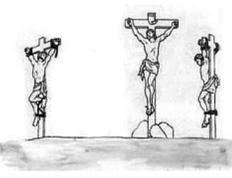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6		7			
			18			8		8	
2		2		20					17
		7					9		
3					10				
		11		10				14	13
4	4			12				11	
	19							13	12
			5		16	14			
	5					15			

-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
12. 몸이 대변에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
  13. 투표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한 곳
  14.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냄
  15.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장부
  16. 연필이나 볼펜, 지우개 따위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 모양의 물건
  17.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물건을 파는 곳
  18. 병이 완전히 나음
  19. 성숙한 남자의 코밀이나 턱 또는 뺨 언저리에 난 털
  20.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하는 곳

7.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8. 뜻밖의 긴급한 일이 생기는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둔 돈
9.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
10.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세
11.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12. 표창하는 내용을 적어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
13. 구약 시대에 성전 또는 막 안의, 하나님이 있는 가장 거룩한 곳
14.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침

<지난 4월호 정답입니다>

가로문제

1. 서로 간에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
2. 마을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3. 기계나 자동차 따위의 운동을 갑자기 멈추게 함
4.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속
5. 학생이 책이나 공책 따위의 학용품을 넣어서 다니는 가방
6.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세
7.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8. 햇별이 나 있는데 잠깐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9. 짠맛이 나는 흰 빛깔의 결정체
10. 못 쓰게 된 종이나 쓰레기 따위를 버리는 통
11.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전날 밤에 열두 제자에게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세로문제

1. 화장하는 데 쓰는 크림, 분, 향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3.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
4. 어찌할 도리나 방법이 없어 꼼짝 못 함
5.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일
6. 기온과 습도 따위의 기상 요소를 자료로 무더위에 대하여 몸이 느끼는 쾌, 불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비	대	면				발	광	체
밀		접	이	문		부	탁	납
번				외		뚜		박
호	기	심		한	증	막		탈
		사	표		후			감
여	인	숙			군		탈	이
의		고	추	장		허	수	아
주	식			본		락		비
		중	립		인	상		차
소	독				처	가	살	이

- 정답은 2022년 6월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010-7152-4460)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전도축제 발대식 ■ 4월 3일 ■

5.1.(주일) 오전 11:00 5.8.(주일) 오전 11:30  
이벤트 데이 어린이 Happy 데이

5.15.(주일)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The 온 성도 새가족 초청  
더 Happy 데이



봄맞이 클린데이 ■ 3월 19일 ■



구약집중통독



리더십세미나



일대일 사역  
젬스 영어  
문화아카데미



리더십 사관학교를 마치며



부개목장  
서유나집사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리더십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관학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장교를 배출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군사 중에서도 장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예수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집약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강에 걸친 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 1) 누가 훈련을 받는가?  
신앙의 여러 단계 중 2단계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수준(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에서 3단계 남의 문제를 위해 섬기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 2) 쓴뿌리를 제거하라  
예수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진 뿌리가 아닌 다른 육신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렸는데 무성하게 자라 내 마음이 가시나무밭 같습니다. 육신의 씨앗은 마음의 죄, 관계의 상처, 환경이 주는 영향 등으로 심겨집니다. 그러나 장교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 3)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아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게 하는 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인 종교적 삶입니다. [막12:30]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림줄이 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복을 위해 하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나를 깨트리는 생명의 신앙! 그 다림줄의 눈이 열리기 위해 겸손히 사모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 4)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희생제물의 향기입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는 향, 그 향을 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야곱의 물러서지 않는 기도, 한나의 기도, 눅11장에 나오는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의 고백으로 간청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배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소서의 고백입니다.
  - 5)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나의 소리, 육적인 본성의 소리를 알아야 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인지 알아야 합니다. 음성 듣기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되고 쉽게 속고 변명, 교만해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 좋은 것을 못 받게 됩니다.
- 6)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  
성도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 7) 말씀과 성령의 조화  
[행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살전1: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 8) 선교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세계선교를 지시하심 [창12:1]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온 민족의 하나님으로 [말1:11]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행1:6-8]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과 권능받아 땅끝까지 선교하라
  - 9) 대한민국과 월드와이드교회 사명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한의 벽을 넘고 중국, 베트남의 벽을 넘고 다

신교 힌두교 불교의 벽을 넘고 이슬람의 벽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예수그리스도의 군사 특별히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나 혼자 싸움이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도와가며 나아갈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퇴마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모습을 동경하며 성령을 사려고 했던 모습이 내 모습과 비슷합니다.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예수그리스도가 주인되어 그분의 장교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대장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리더이신 그분은 가장 선하며 세밀하시며 풍성하시며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 앞서신 박인용목사님과 월드와이드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v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분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분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분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핀터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핀터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분당
국제 사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블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vch.or.kr

2022 블레싱 전도축제

온가족  
천국백성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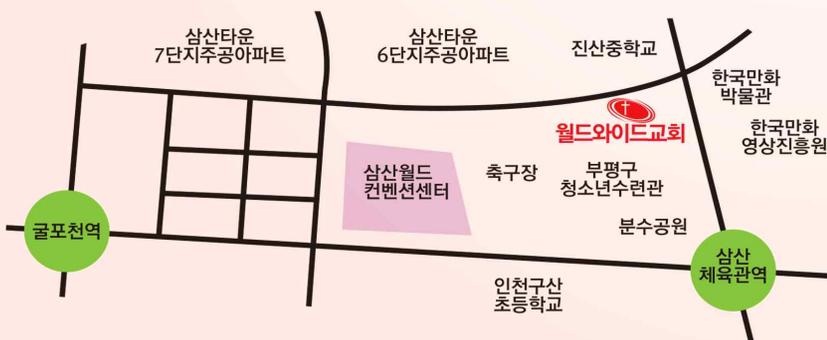
5.1.(주일) 오전 11:00  
이벤트 데이

5.8.(주일) 오전 11:30  
어린이 Happy 데이

5.15.(주일)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The 온 성도 새가족 초청  
더 Happy 데이

\* 이 날 오신 분들께는  
소중한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드와이드교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82(삼산동 458-3) (우)21343  
전화 : 032-501-9686-7 / 팩스 : 032-503-9686